

2015 UC Berkeley Summer Session 참가 후기

20130487 생명과학과 이수연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미국 서부 California 주의 UC Berkeley에서 Summer Session Classes를 수강하고 온 생명과학과 이수연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Summer Session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꼭 도전해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접하기 어려운 분야의 수업을 듣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서, 그들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UC Berkeley Summer Session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필요한 정보들 위주로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Summer Session Courses 등록 & 수강신청

포스텍에서 Summer Session Program 참가자로 선발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참가지원을 해야 합니다. 학기 초에 국제협력팀에서 POVIS 교내회보 게시판에 Summer Session 참가자 모집에 관한 게시물을 올려주십니다. 그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해외파견프로그램 서약서, 참가지원서, 추천서, 성적증명서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면 얼마 후에 메일로 합격 여부를 알려주십니다. 참가지원서에 학업 계획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UC Berkeley Summer Session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http://summer.berkeley.edu/>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UC Berkeley의 Summer Session 프로그램에는 A, B, C, D, E Session이 있는데, 그 중에서 C, D, E Session만이 1학기 종강 이후이기 때문에 C, D, E Session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C는 8주(7월 말~ 8월 중순), D는 6주(7월 초~8월 중순), E는 3주(7월 말~8월 중순) 프로그램입니다. UC Berkeley의 Online Schedule of Classes 사이트 (<http://schedule.berkeley.edu/srchsmr.html>)를 통해 조건에 맞는 개설 과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Sessions 항목에 C, D, E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관심 있는 Department나 Course Title Keyword를 입력하신 후 'begin search'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UC Berkeley는 Computer Science, 자연과학, 사회과학 분야가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외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수업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는 Department of Psychology의 'Music and the Brain'(2 Unit)이라는 수업과 American Studies의 'Visual Culture in American Society: Photography and Art'(1 Unit)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Music and the Brain'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음악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해서 감정적, 신체적인 영향을 일으키게 되는지를 연구하는 과목입니다. 음악이 사람들의 기분과 행동, 능력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음악과 뇌과학 모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수업은 Session D로, 6주동안 일주일에 두 번, 2시간 반씩(월수 오후 2시반~5시) 진행되었고, Midterm, Final Exam, 3개의 Assignment, Participation이 평가요소였습니다. Assignment 1은 'Audicity'라는 Sound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파일을 분석하는 것이었고, Assignment 2는 'Neuroscience of Music' 분야의 논문 2개를 직접 찾고 정해서 요약하는 것이었습니다. Assignment 3는 Times New Roman, 12 point, Double

spaced로 4장~6장 분량의 논문 Proposal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주제를 직접 선정하고, 연구의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고, 수업내용에서 배운 것들과 스스로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실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결과를 예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어렵기도 했지만 재미있었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Music and the Brain' 수업은 한국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분야를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제 전공 지식도 조금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Visual Culture in American Society: Photography and Art'은 사진과 미술품 등을 통해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과목이었습니다. Session E로, 수업은 3주동안 일주일에 두 번, 2시간 반씩(화목 오후 12시~2시반) 진행되었습니다. In-class group assignment, Participation, Final Essay, Final exam이 평가요소였습니다. Final Essay는 작품 하나를 본인이 선정한 후, 4~6장 분량으로 그 작품의 시각적인 요소들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Final Exam은 1시간동안, 한 문제당 3~4 문장 정도로 답을 작성하는 문제를 10문제 푸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 미국의 역사, 특히 흑인 여성들의 억압과 투쟁에 대해 다양한 예술작품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모집에서 선발되면, 인터넷을 통해 등록과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http://summer.berkeley.edu/registration/schedule#deadlines> 에서 deadline을 확인하신 뒤, 그 전에 summer session 사이트를 통해 등록하셔야 합니다. 인기가 많은 수업은 빨리 차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또, 수업을 듣다가도 1주차 금요일 정도까지는 환불을 받으면서 수강정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은 다음달 말까지 결제한 카드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수강신청을 할 때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료는 1학점당 406 달러(48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등록금과 International Service Fee까지 붙어서 3학점을 수강하는 데 2068 달러(248만원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 결제는 마스터카드 등 해외결제 가능한 카드로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얼마 후에 입학 허가서 등이 첨부된 메일이 오는데, 이 메일 내용대로 준비하시고, UC Berkeley 메일 계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2. 항공권 & 비자 & 보험

항공권은 UC Berkeley 행이 결정되고 최대한 빨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아시아나 항공으로 왕복 120만원 정도에 샀는데, 저보다 빨리 산 친구는 다른 항공이었지만 왕복 100만원에 샀습니다. UC Berkeley와 가까운 국제공항에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와 오클랜드 국제공항(Oakland International Airport)이 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만 이용했지만, 오클랜드 국제공항이 UC Berkeley와 더 가깝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항공편을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5월에 네이버 항공권 가격비교 서비스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을 찾았고, 웹투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했습니다. 비행 시간은 11시간 정도였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면 지하철인 BART를 타고 Downtown Berkeley 역으로 온 다음 구글맵 등을 참고하여 집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저는 3학점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ESTA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보험은 포스텍 국제관

에 있는 여행사에 가서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 관련 내용은 UC Berkeley 사이트 중 (<http://summer.berkeley.edu/international/health-insuranc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숙소

기숙사를 이용하면, Meal point를 주기 때문에 식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6주에 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저는 sublet을 이용하였습니다. Sublet은 그 방을 원래 이용하던 사람이 방학 때 집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이유로 방을 비우게 될 때 잠시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 방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Sublet은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살펴셔서 만약의 경우에 법적 책임을 모두 물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Sublet은 조건마다 다르지만 2명에서 쓰는 방이 보통 한 달에 6~700 달러, 6주는 1000~1200 달러 정도 합니다. Berkeley Facebook Group 내의 Housing Group에서 구하실 수 있는데, 이 Facebook group은 Berkeley 메일 계정 (@berkeley.edu)이 있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 당할 확률이 낮습니다. Berkeley 메일 계정이 필요하지 않은 Housing group과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가구와 수도, 인터넷, 세탁기 등의 사항을 잘 확인하고 집 주인과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 대화를 한 후, 계약서를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지불해야 하는 날짜가 미국 도착 날짜 전이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지불 날짜를 미뤄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방 2개, 욕실 1개, 부엌 1개로 구성된 아파트에서, UC Berkeley 학생과 둘이서 방을 같이 쓰면서 6주에 960 달러를 지불하였습니다. 물과 인터넷은 포함되어 있었고, 세탁기는 아파트 지하에 있는 동전 세탁기를 이용하였습니다. 제 룸메이트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 친구를 통해 UC Berkeley에 다니는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쪽에 Telegraph Ave와 People's park에서 가까운 Hillegass Ave에 살았지만, 이 주위가 식당은 많지만 노숙자들도 많고 매우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권이 줄어들니, Sublet은 가능한 한 빨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4. 전반적인 생활

먼저, 날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Berkeley 쪽은 한국에 비해 춥고 건조합니다. 낮에는 25도 정도할 때도 있지만 보통이 낮 기온 22도, 저녁 기온 15도 정도 입니다. 학생들이 여름에도 기모 후드를 많이 입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팔 옷 위주로 챙겨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휴대폰은 한국에서의 휴대폰을 정지시킨 후 현지에서 simcard를 사서 이용했습니다. 저는 AT&T에서 한 달에 데이터 1.5GB를 주고, 45 달러인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AT&T는 Downtown Berkeley Bart Station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도착하신 날 바로 개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6주동안 평일에는 수업을 듣거나 운동, 공부를 했고, 5주차를 제외한 주말에는 Sanfrancisco로 나가서 놀거나 여행을 했습니다. 학교에 처음 도착해서 Cal 1 card office(오후 4시 반에 닫습니다.)에서 여권을 보여주고 Cal 1 card를 발급받으면 생활하는 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은 학교 내의 RSF(Recreational Student Facilities)라는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매우 넓고 좋았는데, Cal 1 card가 있으면 10 달러만 내고 등록하면 6주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1층은 런닝머신 등 유산소 운동기구들과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Weight Room, 펜싱이나 댄스 연습을 하는 방들, 구기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Weight Room은 우리 학교 체육관의 4배 정도 되는 규모이고, 기구들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2층에는 매트를 깔고 맨몸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유산소 운동기구 몇 대, 농구장 1개가 있었고, 3층에는 농구장 2개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농구 공을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룸메이트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에 4~5번씩은 꼭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도 꾸준히 했고, 농구도 배우면서 체육관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교내에는 도서관도 20여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네 개의 도서관에 가보았는데, East Asian Library가 가장 예뻐했습니다. 한국 책들도 많았고, 나무로 디자인되어 있고, 독서실 책상도 있어서 공부하기 좋았습니다. 도서관들은 대부분 오후 5시에 닫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의실이나 도서관 등의 학교 건물은 Google Map을 이용해서 찾아 다녔습니다. 학교 내에도 미술관이나, 박물관, 시계탑 등의 관광 명소가 많으니 많이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Sanfrancisco로 갈 때에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인 BART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BART는 편하지만 비쌌기 때문에 저는 F번 버스를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F번 버스를 포함한 AC Transit은 Cal 1 card를 보여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도보로 30분 이상 걸리는 강의실에 가야 한다면, 학교 내의 스쿨버스나 AC Transit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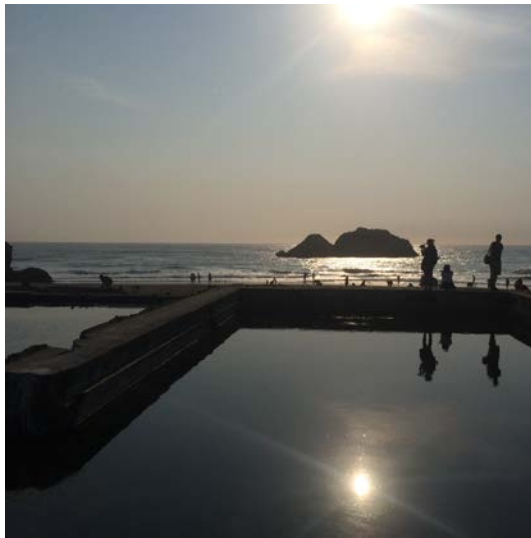
학교 주변에 식당은 많았지만, Tax와 Tip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만원이 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또, 양도 매우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왔고 맛도 좀 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처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사와서 주로 집에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AC Transit인 1번 버스를 타고 'Whole Foods Market'을 이용하거나, Downtown Berkeley BART Station 근처에 위치한 'TargetExpress'를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식빵, 베이글, 파스타 재료, 달걀, 소고기 등이 매우 저렴하였습니다. 저는 요리를 해본 적이 많지 않아서 닭가슴살 샐러드, 샌드위치, 파스타, 스크램블드 에그 등 간단한 요리만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파스타에는 재미가 붙어, 친구들에게 대접하기도 했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비용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끔 외식을 하실 때에는, 'Yelp'라는 앱을 통해서 주변 맛집을 검색하시고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5. 여행

주말에는 San Francisco를 여행하였습니다. Powell Station 쪽은 큰 백화점과 영화관 등이 있는 번화가였습니다.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에는 주로 Powell Station에서 만났습니다. 또, Pier 39, Coit tower, Golden Gate Park, Sausalito, Land's End 등에 가봤습니다. Sausalito에서 페리

(수상 택시)를 타고 본 해질녘의 Golden gate bridge와, Land's End의 파도소리,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두 곳은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Midterm이 끝난 주 주말에 Los Angeles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델타항공으로 왕복 32만원 정도의 항공권을 2주 정도 전에 구매했습니다. 이 항공권도 미리 살수록 저렴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숙소는 Hollywood 거리에 있는 6인실 Dormitory였고, 이틀에 11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리피스 천문대, Hollywood, 유니버설 스튜디오, 산타모니카 해변 등을 구경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좋은 경치도 많이 보고, 외국인 친구도 사귄 수 있었습니다.



Land's End (San Francisco)



Universal Studio (LA)

6. 비용

UC Berkeley에서의 Summer Session은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수업료와 등록금만 250만원

정도 들었고, 항공권 120만원, 숙소 115만원, 책값 15만원, 여행 70만원, 생활비 80만원, 쇼핑과 선물 30만원 정도 해서 총 68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학교의 Summer Session 장학금을 빼면 48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기 중에 미리 학기근로와 과외 등을 한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이 비용이 들었지만, UC Berkeley Summer Session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학업적으로도, 학업 외적으로도 앞으로의 삶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UC Berkeley Summer Session을 고민하고 있다면, 도전해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